

중국산 맥주 절대 마시지마라!

식약청, 긴급수거 포름알데히드 검사 ... 리터당 1.2mg 함유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5년 들어 수입돼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맥주에 대해 긴급수거·검사하도록 조치했다고 7월11일 발표했다.

중국에서 맥주를 제조할 때 침전물 제거를 목적으로 포름알데히드(Formaldehyde)를 사용하고 있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른 것이다.

식약청은 기존에 유통중인 중국산 맥주를 수거해 검사하는 것과 함께 앞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국산 맥주에 대해서도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필한 후 통관시키도록 했다.

한편, 2005년 들어 국내에 수입된 중국산 맥주는 12개사 15개 제품으로 13억~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.

한편, 중국 언론은 중국산 맥주의 95% 가량이 인체에 유해한 포름알데히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, 함유량이 중국 식품안전법이 정한 포름알데히드 기준치인 0.2mg/ℓ의 6배에 달하는 1.2mg/ℓ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.

<화학저널 2005/07/12>